

영남지역 기혼여성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외식행동에 미치는 영향

김 성 미^{1†} · 이 영 순²

¹계명대학교 식품영양학과

²계명문화대학 식품영양조리과

The Effect of Socioeconomic Status on Eating-out Behavior of Married Females in Younngnam Area

Sung-Mee Kim^{1†} and Young-Soon Lee²

¹Dept. of Food and Nutrition, Keimyung University

²Dept. of Food, Nutrition and Cookery, Keimyung Colleg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socioeconomic status on the eating-out satisfaction, eating-out expenditure, meal balance and dietary attitude of 251 married females in Younngnam Area. The monthly frequency of eating out with family was 2.5 visits with an expenditure of 116,000 won in this study. Korean food was the most frequently selected type of board for breakfast, lunch and dinner. The respondents satisfied with the taste of the food the most, whereas least satisfied with the sanitation. The average expenditure for eating-out was 62,000 won per visit with the average of 39,000 won in the lowest income group and 78,000 won in the highest one. Regarding the meal balance score, the overall score was 3.48 with the lowest score(2.98) being recorded for the dairy products and the highest score(3.95) for vegetables. As for the dietary attitude score, breakfast scored the highest(3.79) and consideration of balanced workload, exercise, rest and dining activities received the lowest score(2.57). Meal balance and attitude score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eating-out expenditure levels. The eating-out expenditure demonstrat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total food expenditures, household income, educational attainment and others. The low income group who had low meal balance scores and dietary attitude scores tended to spend proportionally more on eating-out. In conclusion, the studies revealed that the respondents favored the Korean food and did not satisfied with the sanitation most when eating-out. In terms of eating-out expenses, the group with the highest income and educational attainment spent the most on eating-out and food expenditures.

Key words : Eating-out satisfaction, eating-out expenditure, meal balance, dietary attitude.

서 론

최근 우리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국민의 생활이 풍요로워졌고 인구의 노령화와 단독가구의 증가, 아파트 보급증대 및 여성의 취업률 증가 등 많은 사회적 변동이 있었다. 또한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자동차의 보급률이 높아졌고 해외여행의 성행으로 많은 일반인들이 외국의 식생활을 직접 경험하고 소비하는 일이 많아졌으며, 주 5일 근무 등의 사회환경변화는 가정 밖에서 식사를 해결하려는 요구와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 등을 유발하였고 이로 인하여 식품 및 외식 관련

산업의 발달이 눈부시게 진행되었다. 선진국의 경우 소득이 증가할수록 패스트푸드의 이용이 증가되었다는 보고(ACSH 1982)와 같이 우리나라도 경제성장이 활발하던 70년대부터 패스트푸드의 이용이 급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Statistical year book in Korea 2003). 이 때부터 이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했다(Mo SM 1986, Mo et al 1986, Roh & Yoo 1989a, 1989b, Kang & Cho 1991, Han MJ 1992, Yoon & Wi 1994, Kim DJ 1994, Park & Shin 1996, Kim & Chung 2001, Jeong & Kim 2001). 패스트푸드 이용은 외식형태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가계 식료품비 지출이 1975년까지는 외식의 품목이 선택적 품목이었으나 1984년부터는 필수적인 품목이 되었다(식품과 위생 1985). 또한 통계청(2003)자료에 의하면 총 가계비에서 차지하는 외식비는 '87년에는

[†]Corresponding author : Sung-Mee Kim, Tel: 053-580-5871,
E-mail : smkim@kmu.ac.kr

4.1%, '97년에는 10.4%, '03년에는 12.7%로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과거의 외식은 직장인들의 점심 식사나 여행자들의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이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여성의 사회경제적인 활동 증가로 이보다는 사교성, 편의성 및 식도락의 목적으로 점점 외식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어 외식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Mo SM 1986, Mo et al 1986, Kim & Chung 2001, Jeong & Kim 2001).

외식은 생리적 욕구뿐만 아니라 문화적, 정신적 및 사회적으로 다양한 기능을 갖게 되었다.

특히 주 5일제 근무로 인하여 레저와 관광산업의 활성화와 맞물려 지역을 초월하여 외식의 기회는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외식을 이용하는 인구가 증가되면 이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출 수 있는 차별화된 외식업체의 올바른 운영태도가 요구된다.

외식이란 가정 이외의 식생활을 총칭하나 연구자들에 따라 개념의 정의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Kim(Kim DJ 1994)은 외식이란 집단 급식소와 각 직장의 구내식당을 제외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음식점에서의 식사만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Jeong & Kim(Jeong & Kim 2001)은 가정 내에서의 식사를 제외한 식생활을 모두 외식의 개념으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외식이란 가정 이외의 식사 중 도시락과 급식을 제외한 식사를 말한다.

지금까지의 외식관련 연구는 주로 대학생들의 외식행동이었으며(Roh & Yoo 1989, Han MJ 1992, Kang & Cho 1992, Yoon & Wi 1994, Jeong & Kim 2001, Ro et al 2001, Kim et al 2004), 외식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연구(Um & Ryu 2002, Kim et al 2001, Lee MJ 2002), 패스트푸드 관련 외식(Mo et al 1986, Kim 1989, Han MJ 1992, Mo et al 1990)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가정 소비의 주축인 기혼여성의 외식 행동에 대한 연구는 흔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일반적인 관점에서 외식의 증가는 올바르게 않은 식사태도와 식사균형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되며, 나아가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에 문제를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남지역에 거주하는 기혼여성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외식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외식이 식사태도와 식사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자

영남지역(대구 및 경남·북 지방)의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기혼여성(25세~65세)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령분류는 가정생활주기에서 가정확대기인 40대를 기준으로 아래, 위의 세대로 분류하였다. 배부된 300부의 설문지 중 기재가 미비한

설문지를 제외한 251부를 자료로 사용하였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자가 작성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조사는 식품영양학을 전공하는 훈련된 면접자가 직접 면접하여 자료를 얻었다. 설문지의 내용은 대상자의 일반사항과 사회경제적 상태, 외식의 만족도, 외식비, 식사균형 및 식사태도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식사균형 및 식사태도 등의 각 항목들은 '항상 그렇다' 5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한 Likert scale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3. 자료처리

자료의 처리는 SPSS win10.0 Package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 처리 방법은 각 항에 대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분석하였다. 평균으로 표현된 결과의 두 집단 간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student's *t*-test를 실시하였고, 세 집단 이상의 평균값은 분산분석(ANOVA)으로 처리하여 유의성이 있을 때 Duncan 다중비교분석으로 집단간의 차이를 추후 검정하였다. 외식비, 식료품비, 총수입, 식사태도 및 식사균형과의 관계는 Pearson의 상관계수를 이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사항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연구 대상자는 기혼여성으로 총 251명이었으며, 25~39세 58명(23.1%), 40~49세 151명(60.2%), 50~65세 42명(16.7%)이었다. 학력은 고졸이 70.9%(178명), 고졸 이상이 29.1%(73명)로 고등학교 졸업자가 많게 나타났다. 가정 내 총 수입은 160만원에서 290만원까지가 136명(54.1%)으로 가장 많았고 300만원 이상의 가정도 25.1%를 나타내었다. 직장을 가진 여성이 43.8%, 직장 없는 전업주부가 56.2%를 나타내어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가족의 형태는 핵가족이 91.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외식에 관한 일반 사항들을 Table 2에 제시하였다. 외식은 식사 위주 75.7%, 술 위주 1.2%, 식사와 술 22.3%, 기타가 0.8%로 식사가 가장 주된 형태였다. 식료품비는 20~40만원이 가장 많아 51.0%를 나타내었고, 가족과 함께 외식하는 빈도는 한 달에 2.5회, 비용은 11.6만원으로 나타났다. 연구시기가 동일한 연도이며, 서울의 강남지역과 경북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한 외식업소의 품질 요소별 중요성(Yu & Park 2002)연구에서 가족과 함께 하는 외식비가 10만원 미만 32.7%, 10~19만원이 42.3%를 나타내어 본 연구의 외식비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혼자 외식하는 횟수는 한 달에 2~3회가 22.7%이었고, 일년에 1~2회 하는 경우도 22.3%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어 기혼여성들의 외식횟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일직장의 경우 도시락 지참이 20.4%, 외식 39.8%, 직장에서 점심제공이 39.8%이었다. 한 달에 소요되는 외식비는 5만원 미만이 51%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married female

Characteristics	N(%)
Age (year)	
25~39	58(23.1)
40~49	151(60.2)
50~65	42(16.7)
Education level	
Below high school	178(70.9)
Above high school	73(29.1)
Income (10,000 ₩/month)	
≤ 159	52(20.8)
160~299	136(54.1)
≥ 300	63(25.1)
Job	
No	141(56.2)
Yes	110(43.8)
Eating-out expenditure (10,000 ₩/month)	
<4.9	128(51.0)
5~9.9	73(29.0)
>10	50(20.0)
Type of family	
Nuclear family	230(91.6)
Extended family	21(8.4)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eating-out

Variables	N(%)	Variables	N(%)		
Type	Meal	190(75.7)	Everyday	9(3.6)	
	Alcohol	3(1.2)	5~6/week	10(10.4)	
	Meal & alcohol	56(22.3)	3~4/week	17(6.8)	
	Miscellaneous	2(0.8)	Times	1~2/week	53(21.1)
Food cost (10,000 ₩/month)	<20	30(12.0)		2~3/month	57(22.7)
	20~40	128(51.0)		1/month	49(19.5)
	46~60	63(25.1)		1~2/year	56(22.3)
	>60	30(12.0)	Lunch	Lunch box	21(20.4)
Eating-out (w/family)	Times/month	2.5±1.6		Eating out	41(39.8)
	Expenses(10,000₩/m)	11.6±9.0	At work	41(39.8)	

2. 외식 시 선택하는 음식종류와 목적

외식 시 선택하는 음식종류와 목적을 Table 3에 나타내었다. 아침식사는 한국음식이 96.4%로 가장 많았고, 점심 역시 한국음식이 51.8%로 가장 높았으며, 저녁식사로도 한국음식이 78.1%로 가장 많아, 기혼여성들은 외식 시 한국음식을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하는 목적으로는 아침 외식은 '끼니로'가 38.6%로 가장 많았고, 점심 외식 역시 '끼니로'가 19.9%, 저녁외식은 가족행사 41.8%, 모임 33.5%,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21.1%로 다양한 목적을 나타내고 있었다. 1996년의 연구(Park & Shin 1996)에서 도시의 직장남성이 외식시 주로 선택하는 음식은 모든 연령에서 한국음식이 가장 많았고, 모든 학력군에서도 가장 한식이 높았다. 2002년 진주시내 직장인의 외식이용실태 및 선호도에서도 나이에 상관없이 한국정식이 손님접대용 외식음식으로 선호되는 음식이었다(Kim & Kim 2002). 또한 Seo & Han(Seo & Han 2003)의 연구에서도 한국인은 외식할 때 한국음식을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대와 성별을 초월하여 한국인은 한국음식을 가장 좋아하는 것을 나타낸다.

3. 외식 시 만족도

연구대상자들이 외식할 때 음식의 맛, 영양적인 면, 가격 면, 위생적인 면, 시설수준 및 서비스의 태도 등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하여 Table 4에 제시하였다. 위의 각 속성에 대하여 25~39세의 연령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은 시설수준(3.72), 그 이상의 연령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은 음

Table 3. Kinds and purposes of eating-out

N(%)

Variables	Kinds					Purpose				
	Korean food	Chinese food	Japanese food	Western food	Instant food	Meal	Nutrition	Delicious	Family event	Meeting
Breakfast (N=251)	242(96.4)	0(0)	0(0)	2(0.8)	7(2.8)	97(38.6)	11(4.4)	5(2.0)	9(3.6)	7(2.8)
Lunch (N=251)	130(51.8)	62(24.7)	3(1.2)	18(7.2)	36(4.3)	50(19.9)	12(4.8)	52(20.7)	12(4.8)	62(24.7)
Dinner (N=251)	196(78.1)	9(3.6)	5(2.0)	28(11.2)	13(5.2)	16(6.4)	12(4.8)	53(21.1)	105(41.8)	84(33.5)

Table 4. Eating-out satisfaction in relation to age, education, income and job

Variables	Taste	Nutrition	Price	Sanitation	Facilities	Service
Age ¹⁾						
25~39 (N=58)	3.52±0.66 ²⁾	3.16±0.62	3.01±0.69	2.59±0.77	3.72±3.97	3.16±0.74
40~49 (N=151)	3.51±0.60	3.21±0.65	2.92±0.64	2.73±0.73	3.27±0.65	3.26±0.70
50~65 (N=42)	3.50±0.51	3.07±0.60	2.98±0.68	2.71±0.83	3.35±1.98	3.14±0.78
Education						
Below high school (N=178)	3.48±0.59	3.22±0.61	2.94±0.68	2.75±0.75	3.39±2.32	3.22±0.67
Above high school (N=73)	3.59±0.60	3.05±0.66	2.99±0.59	2.56±0.76	3.23±0.66	3.21±0.85
Income ³⁾						
≤ 159 (N=51)	3.35±0.59	3.14±0.63	2.90±0.73	2.70±0.67	3.18±0.68	3.27±0.63
160~299(N=137)	3.55±0.56	3.18±0.66	2.93±0.64	2.68±0.78	3.49±0.63	3.23±0.72
≥ 300 (N=63)	3.56±0.67	3.17±0.58	3.06±0.62	2.71±0.77	3.21±0.63	3.16±0.79
Job						
No (N=141)	3.54±0.55	3.22±0.62	2.93±0.63	2.74±0.76	3.46±2.58	3.19±0.69
Yes (N=110)	3.47±0.65	3.11±0.64	2.98±0.69	2.64±0.75	3.20±0.70	3.25±0.77

¹⁾ Unit : years.²⁾ Mean±SD.³⁾ Unit : 10,000 W/month.

식의 맛(40~49세 3.51, 50~65세 3.50)이었다. 모든 연령에서 가장 만족도가 낮은 것은 위생적인 면(2.59~2.73)이었다. 교육수준별로 보았을 때 두 학력집단 모두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속성은 음식의 맛(저학력 3.48, 고학력 3.59)이었고, 가장 만족도가 낮은 속성은 위생적인 면(저학력 2.56, 고학력 2.75)이었다. 위생적인 면에서는 고학력집단이 저학력집단보다 만족도가 약간 낮았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수입별로 보았을 때 세 집단 모두에서 가장 만족도가 낮은 속성은 '위생적인 면'이었다.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고수입집단이 세 집단 가운데서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수입 집단별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

는 속성은 없었으며, 또한 수입에 따라 일정한 경향도 나타나지 않았다.

직장 유무별에 따른 만족도 역시 '위생적인 면(유 2.64, 무 2.74)'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전업주부 집단에서 직장여성 집단보다 '서비스'를 제외하고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6개의 속성 가운데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은 '음식의 맛'이었고,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낸 것은 '위생적인 면'이었다. 도시지역 직장남성의 외식행동에서 모든 학력집단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맛, 음식의 종류 및 영양의 순서이었다. 연령별로 볼 때 역시 모든 연령에서 맛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영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단은 50대로 나타났다(Park & Shin 1996). 또한 부산지역의 외식실태조사에서 한번 갔던 그 음식점에 다시 가게 되는 이유 3가지가 음식의 맛, 위생적인 면, 가격 등으로 나타났다(Kim DJ 1994). 이와 같이 모든 연령에서 '음식의 맛'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데 맞추어 '음식의 맛'은 본 연구에서 만족도가 높아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낸 '위생적인 면'은 여대생과 그들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Kang & Cho 1991)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외식구매행동에 나타난 소비자 만족도에 관한 연구(Um & Ryu 2002)에서도 위생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외식산업체들은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는 것보다 기존의 고객이 다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비용이 덜 들기 때문에(Kim et al 2000) 외식산업의 경영자들은 기존 고객을 유지하기 위한 경영전략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외식산업체들은 위생적인 면을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음식과 환경의 위생에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4. 외식비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외식비와 식료품비에 대한 내용을 Table 5에 나타내었다. 대상자 본인의 외식비를 연령별로 분석할 때 40~49세가 6.5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25~39세의 6.3만원이었으며, 50~64세가 가장 낮아 4.7만원을 나타내어 유의적인 차이(p<0.05)를 보였다. 교육 수준별로 보면 고졸 이하가 5.5만원, 고졸 이상이 7.7만원으로 학력이 높은 집단이 외식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수입별로 보면 고 수입집단(300만원 이상)이 7.8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저 수입집단(160만원 미만)이 3.9만원으로 가장 낮아 각 집단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5). 외식비는 직장여성(5.0만원)이 전업주부(5.6만원)보다 유의적으로 낮았다(p<0.05). 1994년 대학생들의 한 달 외식비가 서울 지

역 6.3만원, 김천지역 4.5만원으로 보고되었다.(Yoon & Wi 1994). 연구 대상자의 연령, 조사 시기 및 지역이 다른 선행연구(Yoon & Wi 1884)와 비교할 수 없으나,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의 제한으로 시대와 지역에 따른 변천을 고찰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10년 전 서울지역 대학생의 외식비와 오늘날 기혼여성의 외식비가 비슷한 현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3년 우리나라 가구당 가족전체가 소비하는 외식비가 24.6만원인 것(Statistical year book in Korea 2003)을 감안할 때 기혼여성 본인이 소비하는 외식비는 약 25% 정도에 해당됨을 알 수 있었다.

한 달 동안 사용하는 식료품비는 40~49세의 연령집단(49.3만원)이 두 집단(25~39세 44.1만원, 50~65세 45.2만원)에 비하여 유의적(p<0.05)으로 높았다. 수입에 따른 식료품비의 경우, 고 수입집단이 56.8만원, 중 수입집단 47.4만원, 저 수입집단 34.9만원으로 세 집단 간에 유의적인 차이(p<0.05)를 보였고, 고 수입집단이 가장 식료품비가 많았고, 다음이 중, 저 수입집단의 순서로 낮아졌다. 교육 수준이나 직업 유무에 따라서는 식료품비가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비의 식료품비에 대한 백분율은 Fig. 1에 나타내었다. 연령에서 볼 때 25~39세 15.9%, 40~49세 13.9%, 50~65세 11.5%로 연령이 낮은 집단이 식료품비에 대한 외식비의 백분율이 높았다. 학력에서는 고학력집단이 17.1%, 저학력집단이 12.7%로 유의적(p<0.01)으로 고학력 집단의 외식비 백분율이 높았고, 수입에 따른 외식비의 비율은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직장 유무에서는 전업주부(12.4%)가 직장여성(16.9%)보다 유의적(p<0.01)으로 외식비의 식료품비에 대한 백분율이 낮았다. 우리나라 외식비의 구성비는 '83년 6.3%, '93년 26.4% 및 '03년 50.1%로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Statistical year book in Korea 2003).

Table 5. Eating-out expenditure in relation to age, education, income and job

Variables	Age(years)			Education		Income ²⁾			Job		Total (N=251)
	25~39 (N=58)	40~49 (N=151)	50~65 (N=42)	Below high school (N=178)	Above high school (N=73)	≤159 (N=51)	160~299 (N=137)	≥300 (N=63)	No (N=141)	Yes (N=110)	
Eating-out Expenditure ²⁾	6.3±4.1 ^{ab1)3)}	6.47±5.3 ^b	4.7±3.3 ^a	5.5±4.0	7.7±6.0 ^{**}	3.9±2.6 ^{a3)}	6.2±4.8 ^b	7.8±6.35 ^c	5.49±4.69	6.72±5.09 [*]	6.17±4.78
Food cost ²⁾	44.1±15.7 ^{a3)}	49.3±16.9 ^b	45.2±17.7 ^a	47.1±16.9	48.2±16.9	34.9±12.4 ^{a3)}	47.4±15.6 ^b	56.8±16.5 ^c	47.9±17.2	48.1±16.9	47.41±16.90

* : p<0.05, ** : p<0.01.

1) Mean±SD.

2) Unit : 10,000 ₩/month.

3)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group(p<0.05) : ANOVA Post-Hoc multiple comparison test with Duncan Test.

그러나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 외식비의 식품비에 대한 백분율은 통계청 자료(2003)에서 보다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는 남성들의 외식비가 여성들에 비하여 매우 높음을 의미하고, 외식 중 많은 부분이 직장과 모임에서의 회식 때문인 것 같으며, 가계비에서 지출하는 외식비는 크게 높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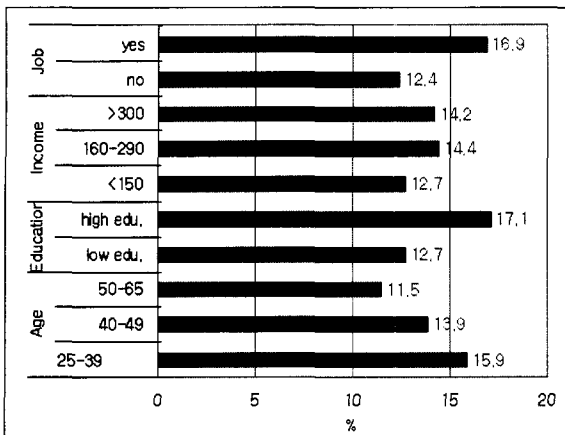


Fig. 1. Eating-out expenditure ratio in relation to food cost(%).

5. 식사균형 및 식사태도

식사균형에 관한 내용은 Table 6에 나타내었다. 식사균형은 고 연령집단이 곡류(4.00), 단백질(4.33), 채소(3.91), 과일(3.70) 및 우유군(3.01)의 섭취가 저 연령집단보다 높았으며, 지방섭취는 저 연령집단(3.12)이 높았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세 연령 집단 모두에서 우유군의 섭취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나 성인여성에서 우유군은 여전히 낮게 섭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교육수준별로 볼 때 채소군을 저 학력군(4.06)이 고 학력군(3.68)보다 유의적으로 많이 섭취하고 있었으며(p<0.001), 자기 스스로 자기의 식사균형을 평가할 때 고 학력군(3.26)이 저 학력군(3.12)보다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식사균형은 전업주부(3.58)가 직장여성(3.37)보다 더욱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p<0.01). 전체적인 식사균형점수는 연령, 학력 및 수입집단별로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내지 않았으나 고 연령집단이 중 및 저 연령집단보다, 저 학력 집단이 고 학력 집단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연구 대상자의 식사태도는 Table 7에 제시하였다. 연령별로 본 식사태도에서 아침 식사를 정상적으로 잘 하며 식사시간을 제대로 맞추어 천천히 식사를 하는 집단은 연령이 높은

Table 6. Meal balance in relation to age, education, income and job

Items	Age(years)			Education		Income(10,000W/month)			Job		Total (N=251)
	25~39 (N=58)	40~49 (N=151)	50~65 (N=42)	Below high school (N=178)	Above high school (N=73)	≤159 (N=51)	160~299 (N=137)	≥300 (N=63)	No (N=141)	Yes (N=110)	
Carbohydrate every eating	3.72±1.02 ¹⁾	3.87±0.96	4.00±1.04	3.89±0.98	3.77±1.01	3.79±1.05	3.85±0.98	3.94±0.95	4.26±3.49	3.70±1.05	3.86±0.99
Protein every eating	3.48±0.86	3.47±0.82	4.33±0.91	3.47±0.88	3.59±0.74	3.27±0.83	3.55±0.84	3.57±0.86	3.63±0.81	3.34±0.86**	3.50±0.85
Vegetable every eating	3.78±0.70	3.91±0.87	4.33±0.79	4.06±0.83	3.68±0.81***	3.98±0.91	3.93±0.83	3.97±0.82	4.02±0.84	3.85±0.83	3.95±0.84
Fruit every eating	3.64±0.95	3.70±0.96	3.79±1.05	3.70±0.98	3.67±0.96	3.71±0.99	3.66±0.95	3.76±1.01	3.75±0.92	3.36±1.03	3.70±0.97
Milk every eating	2.84±1.17	3.01±1.15	3.05±1.27	2.97±1.20	2.99±1.10	3.12±1.26	2.97±1.18	2.87±1.10	2.99±1.12	2.96±1.24	2.98±1.17
Fat every eating	3.12±0.82	3.01±0.88	3.05±0.91	3.08±0.90	2.95±0.76	3.02±0.88	3.07±0.88	3.00±0.82	3.13±0.88	2.92±0.84*	3.04±0.87
Balanced diet ²⁾ every eating	3.16±0.72	3.10±0.81	3.38±0.94	3.12±0.87	3.26±0.67	2.98±0.91	3.23±0.75	3.16±0.88	3.27±0.80	3.02±0.82*	3.16±0.82
Total	3.39±0.53	3.44±0.51	3.61±0.55	3.47±0.55	3.41±0.45	3.41±0.56	3.47±0.53	3.47±0.51	3.58±0.68	3.37±0.56**	3.48±0.63

* : p<0.05, ** : p<0.01, *** : p<0.001.

¹⁾ Mean±SD.

²⁾ Balanced diet is contained carbohydrate, protein, vegetable, fruit, milk and fat.

Table 7. Dietary attitude in relation to age, education, income and job

Items	Age(years)			Education		Income(10,000₩/month)			Job		Total (N=251)
	25~39 (N=58)	40~49 (N=151)	50~65 (N=42)	Below high school (N=178)	Above high school (N=73)	≤159 (N=51)	160~299 (N=137)	≥300 (N=63)	No (N=141)	Yes (N=110)	
Do you have good breakfast normally?	3.62±1.15 ^{1)a2)}	3.73±1.18 ^a	4.24±0.87 ^b	4.02±2.60	3.63±1.15	3.88±1.20	3.98±1.16	3.78±1.16	4.20±2.81	3.53±1.20*	3.79±1.14
Do you have a meal on time?	3.24±0.98 ^{a3)}	3.38±1.06 ^a	3.88±0.89 ^b	3.48±1.05	3.31±0.97	3.38±1.20	3.47±0.98	3.38±1.09	3.55±0.97	3.28±1.09*	3.43±1.03
Do you have a meal slowly?	2.98±0.83 ^{a3)}	3.21±0.84 ^a	3.55±0.86 ^b	3.23±0.89	3.71±4.84	3.87±0.80	3.21±0.78	3.30±0.96	3.62±3.51	3.04±0.89	3.21±0.86
Don't you eat too much?	3.41±0.88	3.33±0.88	3.40±0.96	3.35±0.91	3.40±0.86	3.40±0.92	3.29±0.88	3.48±0.91	3.37±0.85	3.35±0.95	3.36±0.89
Do you have balanced work, exercise, rest and meals every day?	2.40±0.79 ^{a2)}	2.54±0.99 ^a	2.93±0.89 ^b	2.60±0.90	2.51±0.88	2.42±1.02	2.64±0.92	2.54±0.93	2.64±0.86	2.48±1.05	2.57±0.95
Do you usually have a pleased meal with your family or friends?	3.48±0.92	3.58±0.84	3.69±0.81	3.56±0.81	3.62±0.91	3.44±0.90	3.57±0.81	3.71±0.91	3.65±0.76	3.49±0.96	3.58±0.86
Total	3.19±0.58 ^a	3.29±0.62 ^a	3.62±0.55 ^b	3.34±0.63	3.27±0.56	3.26±0.67	3.37±0.66	3.33±0.57	3.50±0.92	3.23±0.68*	3.37±0.83

* : $p < 0.05$.¹⁾ Mean±SD.²⁾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group($p < 0.05$) : ANOVA Post-Hoc multiple comparison test with Duncan Test.³⁾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group($p < 0.01$) : ANOVA Post-Hoc multiple comparison test with Duncan Test.

집단(4.24, 3.88, 3.55)이었다. 운동과 일, 휴식과 식사를 균형 있게 행하는가 하는 항목이 가장 낮은 값(2.93)을 보였으며, 이 또한 고 연령집단이 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교육 정도에 따른 식사태도에서 고 학력 집단과 저 학력 집단 사이에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항목은 보이지 않았으나, 아침 식사를 정상적으로 잘하고 있는 대상자는 저 학력 집단(4.02)이 고 학력집단의 점수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Kim(Kim HK 1987)은 주부들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아침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교사들의 아침식사행동(Hwang & Lee 1999)에서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아침을 꼭 먹는다는 비율이 점차적으로 높게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미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1965~1991년 사이 26년 동안의 아침식사 섭취상태는 86%에서 75%로 감소하였고, 연령별로 보았을 때 연령이 증가할수록 아침식사 섭취는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Haines et al 1996).

가정 내 수입별로 본 식사태도에서 수입에 따라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으며 또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없었다. 그러나 수입이 높은 집단(3.71)에서 유의적이지는 않았으나 식사를 보다 즐겁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들의 영양 교육을 위한 연구(Kim HK 1987)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아침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직업 유무에 따른 식사태도에서 전업주부(4.20)가 직장여성(3.53)보다 아침식사를 정상적으로 잘 하고 있으며, 또한 식사를 제때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이는 서울시내 직장인의 아침식사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아침식사 결식율이 높게 나타났고 이유로서는 여성의 출근준비 시간이 남성보다 많이 걸리고, 다이어트 등으로 인해 아침을 기피하기 때문이라는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Shin et al 2002). 일부 도시 지역 직장인의 식생활관리실태(Kim et al 2001)에서 남자는 54.6%, 여자는 35.8%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아침식사행동 연구(Hwang & Lee 1999)에서 남자 71.3%, 여자 50.0%가 항상 아침 식사를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대체로 남성들 경우에는 대부분이 식사에 도움을 받기 때문에 아침을 잘 먹는 편이며 여성들은 본인이 준비하여 먹어야 하기

때문에 아침을 거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Kim et al 2001). 그러나 10대에서 50세 이상의 연령을 대상으로 한 서울지역 주민의 결식상태에서는 남성이 79.9%, 여성이 71.1%로 남성의 아침 결식율이 높았다(Park & Ahn 2001). 식사를 천천히 하는가 하는 문항에서도 전업주부의 점수가 3.62로 직장여성 3.04보다 높았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식사를 지나치게 많이 먹는가 하는 문항에서는 전업주부, 직장여성 각각 3.37, 3.35로 비슷한 점수를 보여 직장 유무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작업, 운동, 휴식과 식사 등이 잘 조화되고 있는가 하는 문항에서는 전업주부가 2.64, 직장여성이 2.48로 전업주부의 점수가 높았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또한 식사를 가족이나 친구들과 즐겁게 먹는가 하는 점에서는 전업주부가 3.65, 직장여성이 3.49를 전업주부가 보다 즐거운 식사를 하고 있는 경향이었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서울시내 직장인의 아침식사 식습관(Shin et al 2002)에서 연령이 높은 집단의 식사태도 점수가 높은 것은 본 연구와 일치하였으나, 교육수준에서는 본 연구와 달리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의 식습관이 좋게 나타나 본 연구와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식사균형과 식사태도에 대한 점수가 교육정도와 수입에 따른 집단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 또한 일정한 경향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직장 유무에 따른 집단간에는 전업주부가 직장여성보다 식사균형 점수(3.58, $p<0.01$)와 식사태도 점수(3.50, $p<0.05$)가 유의적으로 높았다. 가사작업과 직장과의 병행으로 보다 균형 잡힌 식사가 필요한 직장여성에서 낮은 식사태도 점수는 건강관리의 측면에서 깊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이라고 하겠다. 외식비에 따른 식사균형점수는 고·중·저 외식비에 따라 각각 3.42, 3.49, 3.42를 나타

내어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식사태도 점수는 고·중·저 외식비에 따라 각각 3.36, 3.39, 3.37로 나타나 역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8).

6. 외식비와 각 변인간의 상관관계

외식비와 각 요인간의 상관관계를 Table 9에 나타내었다. 외식비는 식료품비, 총수입, 학력 등과 정의 상관관계($p<0.01$)를, 식료품비는 총수입과 정의 상관관계($p<0.01$)를 나타내었다. 식사태도는 식사균형과 정의 상관관계($p<0.01$)를 보여, 식사태도점수가 높을 때 식사균형점수가 높았다. 또한 외식비는 식사균형 및 식사태도와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나 유의적이지는 않았다. 총수입이 많고, 교육 정도가 높으며, 식료품비가 높은 집단이 외식비가 많았으며, 식사균형점수와 식사태도점수가 낮은 집단에서 외식비가 높은 경향이였다.

Table 8. Meal balance, dietary attitude & food cost in relation to eating-out expenditure

Variables	Eating-out expenditure (10,000 ₩/month)		
	<4.9 (N=119)	5~9.9 (N=75)	>10 (N=57)
Meal balance	3.49±0.53 ¹⁾	3.49±0.84	3.42±0.51
Dietary attitude	3.36±0.79	3.39±1.02	3.37±0.65
Food cost (10,000 ₩/month)	44.96±17.16 ^{a2)}	48.12±16.56 ^b	51.93±15.97 ^c

¹⁾ Mean±SD.

²⁾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group($p<0.05$): ANOVA Post-Hoc multiple comparison test with Duncan Test.

Table 9.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the variables

	Eating-out expenditure (10,000 ₩/month)	Food cost (10,000 ₩/month)	Income (10,000 ₩/month)	Education	Age(years)	Meal balance
Eating-out expenditure (10,000 ₩/month)	1					
Food cost (10,000 ₩/month)	0.206**	1				
Income (10,000 ₩/month)	0.229**	0.314**	1			
Education	0.242**	0.074	0.244**	1		
Age(years)	-0.091	0.037	0.012	-0.340**	1	
Meal balance	-0.056	0.034	0.077	-0.033	0.047	1
Dietary attitude	-0.005	0.000	0.088	-0.009	0.069	0.365**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영남지역의 기혼여성 251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외식행동에 어떠한 형태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가족과 함께 외식하는 빈도는 한 달에 2.5회, 비용은 11.6만원으로 나타났다. 혼자 외식하는 횟수는 한 달에 2~3회가 22.7%이었고, 일년에 1~2회하는 경우도 22.3%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외식 시 선택하는 음식 종류에서, 아침, 점심, 저녁식사에서 한국음식이 각각 96.4%, 51.8%, 78.1%로 가장 많았다. 외식 할 때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은 '음식의 맛'이었고,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낸 것은 '위생적인 면'이었다.
2. 외식비는 전체적으로 6.2만원이었고, 한 달 동안의 식료품비는 전체적으로 47.4만원이었으며, 외식비의 식료품비에 대한 백분율은 전체 13.9%를 나타내었다.
3. 식사균형점수는 전체 3.48이었고, 가장 낮은 식품군은 우유군 2.98, 가장 높은 식품군은 채소군 3.95였다. 식사태도점수는 전체 3.37, 아침식사에 대한 태도점수가 가장 높아 3.79를, 균형 잡힌 작업, 운동, 휴식, 및 식사를 행하는 것에 대한 태도점수가 가장 낮아 2.57을 보였다. 외식비에 따른 식사균형점수는 고·중·저 외식비에 따라 각각 3.42, 3.49, 3.42를, 식사태도 점수는 고·중·저 외식비에 따라 각각 3.36, 3.39, 3.37로 나타나 역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외식비가 높을 때 식사균형점수와 식사태도 점수가 낮게 나타나지 않는 긍정적인 결과였다.
4. 외식비와 각 요인간의 상관관계에서 외식비는 총수입이 많고, 교육정도가 높으며, 식료품비가 많은 집단에서 많았으며($p < 0.01$), 식사균형점수와 식사태도점수가 낮은 집단에서 외식비가 높은 경향이였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기혼여성의 외식행동에서 외식비는 수입과 학력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지금은 크게 높지 않는 기혼 여성의 외식행동도 더욱 확대되리라 생각한다. 또한 외식 시 가장 많이 선택하는 음식이 한국음식인 점과 위생적인 속성에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앞으로 외식산업체가 고려해 나가야 할 중요한 변인으로 보인다. 즉, 외식산업체들은 위생적인 면을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음식과 환경의 위생에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외래식품업체의 환경에 비해 비교적 앞서지 못하는 한국음식의 판매·시설의 환경 등에 보다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문헌

- 모수미 (1986) 외식산업의 발달이 국민영양 및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양학회지* 19(2): 120-128.
- 식품과 위생 (1985) 외식산업 날로 번창. 월간 식품과 위생 3:128-129.
- A report by the American Council on Science and Health (1982) "Fast Foods" and the American consumer. *J Am Dietetic Assoc* 81: 579.
- Han MJ (1992) A survey of college student behaviors on fast food restaurants in Seoul area. *Korean J Dietary Culture* 7(2): 91-96.
- Haines PS et al(1996) Trends in breakfast consumption of US adults between 1965 and 1991. *J Am Dietetic Assoc* 96(5): 464-470.
- Hwang HH, Lee JS (1999) A study of teachers' breakfast behavior and ideal breakfast types. *Korean J Community Nutr* 4(4): 575-586.
- Jeong EJ, Kim JS (2001) A study on dining-out behaviors of college students in Cheju Do. *J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 39(7): 21-36.
- Kang NE, Cho NS (1991) A survey of dietary attitude on the food service industry in college women and their mothers. *Korean J Food & Nutr* 4(1): 45-60.
- Kang JH (2002) A 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 of customer satisfaction for family restaurant dining in Suncheon city. *Korean J Dietary Culture* 17(2): 120-130.
- Kang NE, Cho MS (1992) A study of dietary attitude on the product of food service industry in nutrition major and non-major college women. *Korean J Food & Nutr* 5(3): 150-162.
- Kim DJ (1994) A survey on the actual condition for dining-out in Pusan-1. the propensity to dining-out according to age groups and sex distinction. *Korean J Food & Nutr* 7(3): 239-249.
- Kim DJ, Lee SH (1994) A survey on the consciousness of consumers for franchise system restaurants in food service industry. *Korean J Food & Nutr* 7(1): 36-44.
- Kim DJ, Lim HJ (1998) A survey on the actual condition for dining-out in Pusan: 2. the preference restaurant and food according to age groups and sex distinction. *Korean J Food & Nutr* 11(2): 200-210.
- Kim ES, Jung BM, Chun HJ (2001) The survey of meal habits for the urban salaried workers. *Korean J Soc Food &*

- Cookery Sci* 17(2): 91-104.
- Kim HK (1987) A preliminary study on nutrition education for mothers: 1. Nutrition knowledge and food behavior of mothers. *J Korean Home Economics Assoc* 25(2): 55-68.
- Kim HS, Chung CE (2001) A study on the eating out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in Seoul. *Korean J Dietary Culture* 16(2): 147-157.
- Kim HY, Yang LS, Shin SU (2000) Effect of the service providers perceived service quality on customer loyalty in restaurants. *Korean J Community Nutr* 5(2): 236-242.
- Kim HY, Cho SY, Ryu SH (2001) A study on the customers' experience & satisfaction for food and service quality in restaurants. *Korean J Food Culture* 16(4): 330-340.
- Kim KW, Shin EM, Moon EH (2004) A study on fast food consumption, nutritional knowlege, food behavior and dietary intake of university students. *J of the Korean Dietetic Assoc* 10(1): 13-24.
- Kim SY, Kim JY (2002) A study on the patterns and preference of eating out of workers in JinJu. *Korean J Dietary Culture* 17(2): 171-184.
- Lee MJ (2002) Analysis of staff satisfaction with food service quality in hospital. *J Dietary Culture* 17(1): 49-56.
- Mo SM, Kim CI, Lee SY, Yoon EY, Lee KS, Choi KS (1986) A study dining out behaviors of fast foods-Focused on Youido apartment compound in Seoul. *Korean J Dietary Culture* 1(3): 295-309.
- Mo SM, Jeon MJ, Kim BH, Lee KS (1990) A study of fast food dining out behaviors. *J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 28(2): 15-29.
- Park GS, Shin YJ (1996) A Study of Dining out behaviors of businessmen in urban regions. *Korean J Soc Food & Cookery Sci* 12(1): 13-19.
- Park JW, Ahn SJ (2001) Dietary behaviors and food perception of Koreans living in Seoul by age and gender. *Korean J Soc Food & Cookery Sci* 17(5): 441-455.
- Ro SB, Shin AS, Kil JO (2001) A study on the traditional fast food development of college students in Busan. *Korean J Dietary Culture* 16(2): 81-88.
- Roh JM, Yoo YS (1989) A study on the survey of eating out and food preference of college students in Seoul(I). *J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 27(2): 65-74.
- Roh JM, Yoo YS (1989) A study on the survey of eating out and food preference of college students in Seoul(II). *J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 27(4): 51-58.
- Seo KM, Han KS (2003) The research of preference food material and food away from home behavior on Korean, Japanese, and Chinese. *Korean J Food Culture* 18(4): 346-355.
- Shin KH, Chae KY, Yoo YJ (2002) A Study on the Breakfast habits of salaried people in Seoul. *Korean J Soc Food & Cookery Sci* 18(1): 119-128.
- Statistical year book in Korea (2003)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49: 167.
- Um MJ, Ryu MH (2002) A study on consumer satisfaction with food service purchase behavior.-Focused on university students-. *Korean J Food Culture* 17(5): 543-550.
- Yoon HJ, Wi SU (1994) A survey of college student behaviors on fast food restaurants. *Korean J Food & Nutr* 7(4): 323-331.
- Yu JL, Park DY (2002) Korean family's perception of the importance of the quality of restaurants according to family life cycle. *Korean J Community Nutr* 7(1): 30-140.
- (2004년 2월 24일 접수; 2004년 3월 31일 채택)